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 및 최초의 미닛 리피터 탄생 150 주년을 맞이하여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를 공개합니다. 오직 10 피스만 한정 제작되는 이 타임피스는 그랑 메종의 역사에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테마, 탁월한 차임 워치 전문 기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고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리베르소를 하나의 스토리로 결합합니다.

아르데코 스타일과 회전 케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리베르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손목시계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탁월한 기능과 디자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열정에서 태어난 리베르소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고유한 스타일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갑니다. 혁신적인 회전 케이스 형태와 독창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리베르소 전용 컴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르기까지 매뉴팩처는 계속해서 놀라운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압도적인 차임 워치 유산

쿼츠 위기 이후 기계식 워치메이킹이 다시 부흥기를 맞은 1990년대, 시그니처 직사각형 케이스를 탑재한 리베르소는 매뉴팩처에서 하이 컴플리케이션 전문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게 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성품을 직사각형 케이스에 맞춰야 했기에 전통적인 원형 무브먼트의 구조를 전면 개조한 직사각형 무브먼트를 개발해야만 했으며, 특히 차임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험난한 여정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994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종 최초의 소형화된 손목시계용 미닛 리피터와 세계 최초의 직사각형 미닛 리피터 무브먼트를 탑재한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를 출시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설립 초기에 이미 차임 메커니즘을 선보인 바 있으며,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차임 칼리버를 제작하면서 쌓아 올린 탁월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처음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를 공개한 이후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오랜 전통 위에 세워진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사운드 품질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형태의 미닛 리피터

예거 르쿨트르의 특허받은 트레뷰쉐 해머, 사일런트 레귤레이터, 차세대 공 등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설계, 제작의 모든 과정을 전담한 칼리버 944 개정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다이얼이 모두 돋보이는 새로운 리베르소는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 자체에 색다른 시각적 표현을 더해줍니다. 두 다이얼은 모두 같은 시간을 표시하지만 각각 생기 넘치는 분위기와 절제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상반되는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섬세한 무브먼트 장식이 선사하는 미학적 가치와 매뉴팩처에서 간직하고 있는 탁월한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앞면 다이얼은 스켈레톤 구조로 제작되어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이 온전히 걸로 드러납니다. 특히 미닛 리피터가 활성화되면 역동적인 부품의 움직임은 쉽게 잊히지 않을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11시 방향에서 7시 방향까지 이어진 커다란 보우 형태의 브릿지 아래에는 각각의 부품들이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레일웨이 미닛 트랙의 캔틸레버 각면 인덱스는 시각적 깊이와 더불어 명확한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브릿지와 아워 마커, 공 그리고 몇 가지 구성품은 로즈 골드 시계 케이스 컬러와 동일한 골드 컬러로 마감 처리됩니다.

기하학적인 직선형 리베르소 케이스는 생기 넘치는 앞면 다이얼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절제된 뒷면 다이얼은 직선 라인과 만나 매력이 한층 돋보입니다. 수직 꼬뜨 드 제네브 스트라이프는 다이얼 역할을 겸하는 메인 플레이트 전체까지 이어집니다. 타임키퍼 메커니즘을 한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쿨 실버 톤의 메탈은 블루 스크류와 골드 핸즈 및 아워 마커가 빛어내는 은은한 색채 조합과 균형을 이루어, 케이스의 따뜻한 로즈 골드와 우아한 대비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시계 케이스 측면에 차임 장치를 구동하는 슬라이더를 설치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새롭게 선보이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에 특별히 맞춘 슬라이더를 제작했습니다. 슬라이더는 케이스의 아르데코 라인과 균형을 이루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기술적 정교함과 공예 예술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기술적 역량을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과 연결시켜 영원히 변치 않을 리베르소 디자인의 모던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

케이스 소재: 핑크 골드

케이스 크기: 51.1 x 31mm

케이스 두께: 11.41mm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44, 매뉴얼 와인딩

기능: 다이얼 두 개에 시간 및 분, 미닛 리피터

파워 리저브: 35 시간

방수: 30m

스트랩: 브라운 엘리게이터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 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